

심상을 활용한 보컬 공감력 증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실용음악 보컬 전공자를 중심으로*

황은지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강사)

한경훈 (경희대학교 응용예술학과 교수)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공감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공감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6. 결과 분석에 따른 논의

본 연구는 보컬교육의 진보적 방향성 구축의 일환으로, 여타 학문과의 융합의 과정을 통해 보컬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심상을 활용한 보컬교육안을 구안·적용하여 보컬전공자의 공감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 이 글은 황은지의 「심상이 보컬의 가사표현력과 공감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실용음악 보컬 전공자를 대상으로」(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개정한 논문이다.

연구는 J 대학교 경기도 캠퍼스와 충남 캠퍼스의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보컬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이 호흡기관이나 발성기관 등의 기본적인 조절력을 습득한 이후에 사용되는 심상 접근법이어야만 그 교육적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내용에 따라(문혜령 2013:17), 최소 6개월 이상 호흡, 발성과 같은 보컬 기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최종 참여대상은 총 52명이다. 참여자의 설문 응답 내용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s 12.0K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과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교수자가 보컬교육에서 주로 활용하는 교육의 유형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개념에 대한 응답분포 현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심상 이해정도'와 '공감증진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가장 행태에 나타난 변화는 주요 가설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상 이해 정도와 공감증진력' 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다. 공감력 모형의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공감력 증진 교육이 참여자의 심상 이해정도를 확대하는 것과 공감력 증진의 교육 반영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생의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교육의 참여가 다양한 긍정적 생각의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자의 경우 본 교육의 효용성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실제 교육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제재 곡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심상, 시각적 심상, 실용음악, 보컬, 보컬교육, 공감력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은 1988년 서울예술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약 30여 년의 짧은 역사적 배경을 지닌다. 도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진적 양적 성장을 이루며 발전해 온 한국 실용음악교육은 실용적, 실제적 영역만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실행되어 온 탓에(조승현, 2018:339) 관련 이론이나 교육체계의 정립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실용음악교육 중에서도 다른 전공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보컬 전공이다.(최성수, 2015:16) 보컬 전공은 매년 수백 대 1에 이르는 기록적 입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유독 두드러진 집중현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서바이벌 방송프로그램의 인기와 출신 스타의 부각(정윤희, 2015), 노래 한두 곡만 잘 부르면 입시에 도전할 수 있다는(양우석, 2018:76) 학생들의 인식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실용음악교육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은(이론 및 교육체계 정립의 미흡) 보컬교육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 문제들로 언급된다. 그에 더하여 보컬을 위시한 ‘연주 중심 커리큘럼의 고착화’, 보컬전공의 ‘정원 불균형 현상’ 등 새로운 형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실용음악 보컬교육계는 당장 해결해 나아가야 할 방안의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보컬전공, 보컬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대는 곧 그에 상응하는 진보적 가치 인식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증폭시켰다. 실용음악 대학원 과정의 개체 확장과 활성화를 통해 자체적 이론 구축을 위한 연구 논문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실용음악교육(보컬교육)

계는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적 시도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의 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그 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은 ‘스타니슬라프스키(Stanislavskii) 연기이론 훈련법을 적용한 보컬 교안 개발’, ‘배우의 신체훈련기법을 적용한 보컬 액팅(Vocal Acting) 신체훈련 연구’, ‘창의적 사고기법(스캠퍼 기법, 육색사고모기법, 마인드맵 기법)을 적용한 보컬 지도안 연구’ 여타 학문과의 조응(照應), 즉 ‘융·복합적 마인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최근 들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동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내·외 교육계 전반의 움직임과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미래지향적 보컬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다.

본 연구는 이기영(2019)의 실용음악 보컬교육이 ‘여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학생들의 대중음악 분야에 대한 감수성을 활성화하는 교육’, ‘개인의 자율적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으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보컬교육에 심리학적 요소인 심상을 융합·적용해 봄으로써 시각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중음악의 직접 수용자인 보컬의 심미적 감수성 증진 및 표현·상상력 확대 가능성에 심상 활용의 당위성을 입증하여 실제 교육으로의 구현 가능성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가사(텍스트)의¹⁾ 해석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통해 작품(작사자)과 가창자 간의 교감, 가창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공감의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심상 축진의 과정에 나타나는 보컬공감력 증진의 긍정적 결과를 유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

1) 가창이 다른 음악 장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가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창은 음악과 언어(가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음악 표현의 형태이며, 이는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김기수, 2012:39)

는 보컬교육의 진보적 방향성 구축의 일환으로, 향후 심상을 활용한 실질적 보컬 지도안의 구안 및 적용에 대한 선제적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보컬교육, 나아가 실용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심상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증명해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심상 유형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시각적 심상’이 실용음악 보컬 전공자의 가창 활동에 필요한 주요 요인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시각적 자료를 주요 교육 제재로 활용하여 교육 참여자인 보컬 전공자의 심상적 사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교육안을 고안 적용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주요인으로 선정한 내용은 ‘표현’과 ‘공감’으로, ‘심상 활용이 보컬의 공감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단행본을 통한 문헌 연구 및 작사가, 가수, 보컬 교수자의 관련 동영상 그리고 인터뷰의 내용,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교육에 참여한 보컬전공자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성과들을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험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실제 순차적 실험 수행을 통해 보컬 관련 심상의 효용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3. 연구 가설

다음은 공감력 증진 교육에서 설정한 가설의 내용이다.

가설 1. 연구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컬 전공자의 가창행태 및 유형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심상 축진은 가창자의 작품(작사가)과의 교감(공감)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교육 참여자의 시각적 심상 축진은 수용자(대중)의 공감 능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심상과 심상훈련

오래 전부터 음악교육은 폭넓은 감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였고, 창조성과 독창성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조화로운 인격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과로 인식되었다.(민경훈, 2019:68) 여기에서 강조하는 ‘음악적 상상력’의 근본이자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심상’이다. 음악적 의미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즐겨 듣는 음악의 리듬을 악보나 기타 음악 도구가 아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같음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비틀스(Beatles)를 대표하는 음악 〈Yesterday〉의 경우에도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가 머릿속에 떠오른 심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광일, 2015:145)

심상은 인간의 심리적 작용을 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상을 스스로 통제,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심상 훈련이라고 한다.(김춘경 외, 2016) 예술에 있어서 표현은 예술가의 심상의 수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예술가가 자신의 주관적인 심상을 의미 있는 형태로 구체화할 때 표현은 이루어진다.(아돌프 아론하임, 1984:121)

심상 훈련은 그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개발된다. 첫째, 마음의 눈으로 상상의 장면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머릿속에 형성된 어떤 것으로 실제적 영상으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며 ‘형상화(Pictorialist)’라 한다. 둘째, 정신적 심상을 사용하지 않고 언어로 그것의 본질을 실제로 묘사하는 것을 말하며 ‘묘사화(Descriptionist)’라 한다.(여희정, 1997:21) 보는 것은 상상의 과정을 유발하는 감각 자료의 주요한 자원이다.(임희정, 2005:37) 보컬교육으로의 적용 시 가사의 내용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여 그 장면을 그려봄으로써 ‘형상화’ 하는 과정과, 음악적 언어인 가창을 통해 심상의 본질을 실제로 구현해 내는 ‘묘사화’ 과정을 바탕으로 한 심상 훈련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2.2. 심상과 공감의 관계성

예술가는 감각을 통해 지각된 대상을 유동적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작품을 통해 심상을 외부세계로 끌어내어 타인과의 공감을 유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심상의 과정을 통해 일상의 다발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는 특화된 메시지로 전환되어 예술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작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임희정, 2005:30) 이러한 사실은 가창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창자의 공감 구성요소인 ‘상상하기’ 과정의 수행은 대중적 공감 유도를 통한 관심의 확대와 가

창 구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표정 공감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프로보컬리스트의 노래를 감상하는 대중들의 모습에서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는 보컬의 상상하기 과정과의 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장면 중 하나이다. 그 바탕에는 가창자의 생생한 심상이 마치 대중 자신의 심상으로 되살아나거나, 혹은 과거의 심상이 현실에서 되살아나는 듯한 강력한 느낌의 전달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가창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심상을 더욱 생생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 그 어떤 묘사의 방법보다 가사의 내용을 ‘그림’이라는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상상하는 것이 효율적 방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래하는 것은 그 행위가 목적일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교감하고 느끼고 쾌감을 얻어야 한다. 노래는 암축과 함축의 언어이고,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도 극히 주관적인 해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하여 공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이도식, 2008:71) 공감은 타인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나 감정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해야 하며, 공감에 의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감정 자체, 공감 감정에는 호불호 혹은 동조와 거부 등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우혜연, 2015: 128) ‘호불호’ 혹은 ‘거부’와 같은 부정적 결과와는 상관없이 행위가 목적이 되지 않는 가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컬의 공감력 증진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대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용과 감정 재현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컬리스트에게는 감상자의 마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가창곡에 내재하여 있는 주요 내용 혹은 성질에 대한 이해

의 선행이 가창이라는 창의적 활동으로의 구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올바른 전달을 이행하였을 때 비로소 예술에서의 진정한 표현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보컬리스트는 표현을 잘한다’라는 평가 또한 가능하다. 이 모든 행동의 종착점은 바로 수용자 대중의 공감의 확대를 야기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컬의 공감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J 대학교의 경기도 캠퍼스와 충남캠퍼스에 재학 중인 실용음악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학과 게시판과 SNS를 통해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그에 따라 총 61명의 보컬 전공자가 참여를 신청하였다. 참여자 중 9명은 교육과정 중 개인 사정 및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중도 포기하였으며, 최종 52명이 교육을 완료하였다. 학생이 호흡기관이나 발성기관 등의 기본적 조절력을 습득한 이후에 사용되는 심상 접근법이어야만 그 교육적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내용에 따라(문혜령, 2013:17), 보컬트레이닝을 최소 1년 이상 받은 경험이 있거나 1년 미만일지라도 최소 6개월 이상 호흡, 발성과 같은 보컬 기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

구분		N	%
유형	교육집단	52	100.0
성별	남	20	38.5
	여	32	61.5
전체		52	100.0

연구에 참여한 교수자는 총 20인으로 현재 대학에서 보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이며, 본격적인 참여에 앞서 현행 보컬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가능케 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모든 교수자가 연구 참여 학생들의 가창행태에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의 보컬 교육 경험이 있는 전임교수 3인을 별도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공감력 증진 교육이 실제 교육으로 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여타 요소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3.2. 연구 처치

연구 처치는 ‘가사’와 ‘사진’을 활용한 심상 수업과 메이킹 영상 및 라이브 영상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심상 수업을 실시하였다. 제재 곡으로는 ‘처진 달팽이(이적 &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2011)〉를 선정하였으며, 여성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니엘(커버)’의 노래를 함께 사용하였다. 가창 활동으로의 연계가 용이할 수 있도록 〈말하는 대로〉의 MR을 남, 여 키로 각각 제작하여 참여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가사의 내용은 공규택·조운아(2016)가 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무한도전’에서의 메이킹 영상 시청을 통해 가사해석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에 더하여 시청각 자료(라이브공연 영상)를 활용한 심상 수업을 추가 실시하였다. 가사해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사진 및 인터뷰 기사의 자료를 활용한 심상 수업을 우선 시행하였고, 뮤직비디오 및 라이브 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심상 수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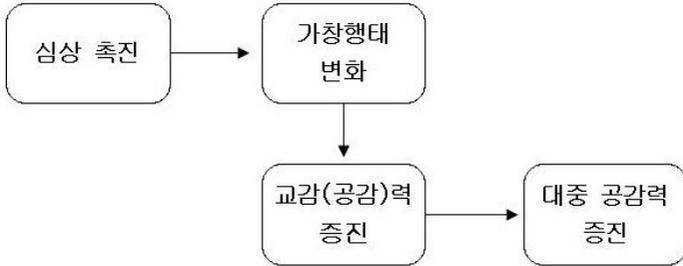
수업을 통한 참여자의 심상 촉진의 내용을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연계하여 구체화하고, ‘토의 및 토론’ 활동을 통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 자료 곡으로 ‘김진호’의 <가족사진(2013)>의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영상을 활용하였으며, 교감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돕기 위하여 ‘김영흠(커버)’의 가창 영상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참여자가 수업의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등을 학습 성찰 일지 작성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창 발표 활동을 진행하여 참여자의 교육 참여 전과 후의 가창 영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4. 공감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4.1. 연구 모형

공감력 증진의 교육에 참여한 보컬전공자의 가창행태에 나타나는 변화가 작품(작사가)와의 교감(공감)력 증진과 수용자(대중) 공감력 증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그림-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1〉 공감력 증진 교육의 연구모형



4.2. 교육목표 및 개요

공감력 증진은 보컬리스트의 주요 역할로 지칭되는 ‘메신저’로서의 능력 확대를 의미한다. 작품(작사가)에 내포된 내용이나 의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의 수행은 곧 작품(작사가)과의 교감(공감)의 확대를 의미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가창은 곧 수용자 대중으로 하여금 공감의 확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결국 이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험은 보컬의 가창력 향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2〉는 공감력 증진을 위한 본 교육의 주요 목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2〉 공감력 증진 교육 교육목표

공감력 증진을 위한 교육의 목표

- 작품(작사가)에 내포된 내용과 의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작품(작사가)과의 교감 확대를 위한 방안의 탐색
- 심상적 사고 촉진을 통한 가창 대중 공감 능력의 향상
- 가창의 효과적 감정이입과 감정 표출의 방법 제시
- 아이디어 도출 과정 및 표현 활동을 바탕으로 한 가창 능력 증진

공감력 증진의 학습 흐름은 크게 ‘도입’, ‘전개’, ‘정리’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입’과정에는 시각적 자극을 바탕으로 한 심상의 형성을 중심으로 하며, ‘전개’ 과정에서는 앞서 형성된 심상을 심상 후 활동 즉, 심상 훈련으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정리’ 과정에서는 가창 활동으로 음악 관련 마무리 활동을 구성하였다.

아래 <표-3>은 공감력 증진 교육의 학습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표-3> 공감력 증진 교육 학습개요

공감력 증진을 위한 학습개요		
학습 개요	심상 형성 자극	가사, 사진, 뮤직비디오, 가사 관련 영상, 가수의 실연 영상
	심상 형성 활동	그림 그리기, 토의 및 토론
음악 활동		가창 발표

효율적 가창 발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상 형성 자극’과 ‘심상 형성 활동’의 구성이 중요하다. 본 교육의 심상 형성 자극을 위해서 ‘가사’, ‘사진’, ‘뮤직비디오’, ‘가수 실연 영상’과 같은 주요 교육 제재를 마련하였으며, 심상 형성 활동을 위한 ‘그림 그리기’와 ‘토의 및 토론’ 활동을 함께 구성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교육 참여자의 공감력 증진 중심의 실질적 가창 구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함의 마지막 단계인 ‘가창 발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4.3. 주요 교육프로그램

본 교육 프로그램은 총 4차시(1차시, 각 60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구상한 후 각 차시별 교육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공감력 증진의 교육은 크게 ‘나의 능력 알아보기’, ‘가사의 내용과 의미 들여다보기’, ‘가사의 내용과 의미 상상해보기’, ‘가창 발표를 통한 음악 활동’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공감력 증진 교육 주요 활동

유형	차시	활동주제	내용
교육 집단	1	나의 능력 알아보기	<개인별 공감 능력 검사> - IRI 검사 ²⁾ 를 통한 나만의 ‘공감 능력’ 측정
	2	프로젝트 1. 가사의 내용과 의미 들여다보기	(1) 가사 내용 바라보기 - ‘가사 이미지’ 함께 읽어보기 (2) 가사 내용 분석하기 - ‘가사해석’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3) 가사 내용 상상하기 - 가사 내용과 관련된 ‘사진’ 및 ‘인터뷰 기사’ 감상하기 (4) 가사 내용 그려보기
	3	프로젝트 2. 가사의 내용과 의미 상상해보기	(1) 가사 내용 감상하기I - ‘메이킹 영상’ 시청하기 (2) 가사 내용 감상하기II - 감정 확대를 돕는 ‘관련 영상’ 시청 (3) 가사 내용 감상하기III - 가수의 ‘실연 영상’ 시청 (4) 가사 내용 공유하기 - 토의 및 토론 활동
	4	가창 발표를 통한 음악 활동	<가창 발표> <설문 활동>

2) IRI 검사는 연구 참여자의 공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대인관계 반응척도로, 데이비스(1980)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사미경(2009)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선제적 검사를 통해 특이사항이 발견된 참여자를 제외시키고자 하였으나 모든 참여자가

5. 공감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5.1.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³⁾을 사용하여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가지면, 요인 내의 측정 도구들의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한다.(신세례, 2013:80)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0.875~0.862로 나타났으며, 그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2. 기술통계치

연구 개념에 대한 응답 분포 현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치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남자=1)은 $.38 \pm .49$ 점, 학년이 $1.98 \pm .89$ 점, 트레이닝 기간이 $3.06 \pm .91$ 점, 차별성(그렇다=1)가 $.92 \pm .26$ 점, 교육개발 적용(그렇다=1)가 $.98 \pm .13$ 점, 심상 이해정도가 $4.38 \pm .63$ 점, 교육반영 여부가 $2.71 \pm .45$ 점, 가사표현력이 $4.60 \pm .38$ 점, 공감증진력이 $4.68 \pm .29$ 점으로 나타났다. 심상 이해정도와 가사표현력, 공감증진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문항들이 내적 일관성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신뢰도 지수의 하나이다. 각 문항을 하나의 테스트로 간주하고 반응자들이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가를 계산하게 된다. (김주후, 2004)

〈표-5〉 기술통계값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별(남자=1)	52	.00	1.00	.38	.49
학년	52	1	4	1.98	.89
트레이닝 기간	52	1	5	3.06	.91
차별성(그렇다=1)	52	.00	1.00	.92	.26
교육개발 적용(그렇다=1)	52	.00	1.00	.98	.13
심상 이해정도	52	3.00	5.00	4.38	.63
교육반영여부	52	2.00	3.00	2.71	.45
가사표현력	52	3.40	5.00	4.60	.38
공감증진력	52	3.33	5.00	4.68	.39

5.3. 가창 평가 분석

다음은 교육 참여자의 가창행태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평가내용에 따른 빈도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평가에 참여한 교수자가 분석한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교수자 평가의 내용

		내용	빈도	%
1	가창 방식의 변화	약간 그렇다	4	40.0
		매우 그렇다	6	60.0
2	가창력 향상 정도	약간 그렇다	5	50.0
		매우 그렇다	5	50.0
3	가사표현 방식의 변화	그저 그렇다	1	10.0
		약간 그렇다	2	20.0
		매우 그렇다	7	70.0

4	가사표현력 확대	그저 그렇다	1	10.0
		약간 그렇다	5	50.0
		매우 그렇다	4	40.0
5	감정표현의 확대	그저 그렇다	1	10.0
		약간 그렇다	3	30.0
		매우 그렇다	6	60.0
6	가창행태의 변화	약간 그렇다	3	30.0
		매우 그렇다	7	70.0
7	작품(가사)의 이해력 향상	약간 그렇다	2	20.0
		매우 그렇다	8	80.0
8	공감력 증진	약간 그렇다	3	30.0
		매우 그렇다	7	70.0
합계			10	100.0

교수자 평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험 참여자 가창의 ‘가창 방식의 변화’, ‘가창력 향상 정도’, ‘가사표현 방식의 변화’, ‘가사표현력 확대’, ‘감정표현의 확대’, ‘가창행태의 변화’, ‘작품(가사)의 이해력 향상’, ‘공감력 증진’ 요소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사표현력 확대 및 공감력 증진의 교육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4. 상관분석

다음은 연구에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하여 제시한 것이다. 연구에서 주요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상 이해정도와 공감증진력 사이에는 ($r=.646^{**}$), 심상 이해정도와 가사표현력 사이에는 ($r=.558^{**}$)의 상관크기가 나타

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심상 이해정도와 교육반영 여부에서는($r=.256$)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반영 여부와 가사표현력 사이에는 ($r=.529^{**}$)로 가장 높은 상관크기를 보이며, 교육반영과 공감증진력 또한 ($r=.426^{**}$)으로 높은 상관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표현력과 공감증진력 사이에는 ($r=.809^{**}$)의 상관크기가 나타나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7〉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심상 이해 정도	교육반영 여부	가사 표현력	공감 증진력
심상 이해 정도	1			
교육반영 여부	.256	1		
가사표현력	.558(**)	.529(**)	1	
공감증진력	.646(**)	.426(**)	.809(**)	1

** $p<.01$

5.5. 공감력 모형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보컬전공자의 개인특성과 가사표현력의 측정 변인이 보컬의 공감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와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의 확인을 위해 공차 한계와 VIF 값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중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의 성별, 학년, 트레이닝 기간, 가사표현력 교육의 차별성, 공감력 증진 교육의 개발적용 등의 변인이 보컬 전공자의 공감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공감력 다중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개인 특성	(상수)	2.795	.540		5.174	.000		
	성별(남자=1)	-.012	.091	-.015	-.131	.897	.888	1.126
	학년	.038	.052	.085	.717	.477	.801	1.249
	트레이닝 기간	-.054	.051	-.125	-1.075	.288	.822	1.217
	차별성(그렇다=1)	-.088	.160	-.059	-.548	.586	.949	1.054
	교육개발 적용 (그렇다=1)	-.056	.311	-.019	-.180	.858	.949	1.053
	심상 이해정도	.335	.077	.530	4.364	.000** *	.754	1.327
	교육반영 여부	.242	.103	.278	2.341	.024*	.790	1.265

R²=.510, F=6,551, p=.000***

*종속변수: 공감증진력***p<.001, **p<.01, *p<.05

공감력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F 검정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F=6,551, p<.001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²는 종속변수의 분산 중 몇 %가 독립변수에 의한 설명량인가에 관한 지표로써(한수정, 2018:208) R²=.510로 나타나 공감능력에 관해 투입된 변인들이 교육 참여자의 종속변인인 공감력에 대해 99.9% 신뢰수준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심상 이해정도는 $\beta=.530(t=4.364)$ 로써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교육반영여부의 경우 $\beta=.024(t=2.341)$ 로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반면 공감력에 대해 성별, 교육개발적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공감력 증진의 교육이 교육 참여자의 심상 이해정도를 확대하는 것

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감력 증진의 교육 반영 여부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6. 심층 평가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감력 증진의 교육 참여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 생각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력 증진 교육의 경우 교감이나 공감을 느껴 본 경험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공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 참여를 통해 공감에 대한 이해와 공감력 증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자의 경우 대학에서 10년 이상의 보컬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과의 운영과 교과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어 본 연구의 내용을 보컬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자를 선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교수자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공감력 증진의 효용성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모든 교수자가 심상을 활용한 본 연구가 보컬의 가창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이 실제 실용음악 교육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대중음악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음악인만큼 그러한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곡, 학생들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곡과 같은 제재 곡의 양적 확보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6. 결과 분석에 따른 논의

본 연구는 음악적 상상력의 근본이자 기반으로 언급한 ‘심상’과 ‘가사’를 활용한 보컬교육안을 구안·적용하여 보컬전공자의 공감력 증진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심상을 활용한 보컬교육을 실제 구안·적용해 봄으로써 도출된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보컬교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컬교육 실태조사’ 결과 교수자 모두 심상(이미지트레이닝)에 대한 이해력과 가사표현의 중요성, 공감력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해당 내용을 보컬전공자에게 실제 교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보컬교육에서 교수자에 따라 지도 과정에서 가사표현력 및 공감력 증진의 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실제 시행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비중이 높지는 않고, 주력하는 보컬교육의 유형이 전문과학적 교수법⁴⁾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차별성의 결과가 유의한 영향력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교수자 심층 면담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다수의 보컬 교수자 집단을 별도로 형성하여 관련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를 통해 종합된 의견의 내용과

4) 전문과학적 교수법은 기계론적인 교수법(Mechanistic Pedagogy)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성악교수법의 주요 경향으로,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입증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선미(2004)가 분류한 용어로부터 착안하여 호흡, 발성, 테크닉(창법) 중심의 보컬교수법을 명명하는 주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객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보컬전공자에게 본 연구가 현행 보컬교육으로 필히 적용되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가사표현력 및 공감력 증진 교육에 대한 ‘교육개발적용’의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원인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보컬교육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보컬전공자의 보여주기식 가창곡 선곡 양상, 전문과학적 교수법 중심의 현행 보컬교육의 주요 유형 등이 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보컬전공자는 물론 교수자 모두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같이 가창에서 가사와 가사해석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사표현력 증진이 감정표현과 공감력을 증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심상을 바탕으로 한 심미적 경험의 확대 및 추가적 교육 제공을 통해 본 연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에서 지시한 ‘그림 그리기’ 및 ‘토론·토의’ 활동방법의 변경 및 시간의 확보를 반영한 교육안으로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그리기 활동 및 토론·토의 활동이 가사의 내용을 심상하고 표현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심층 면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 차시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제재 곡의 전체의 가사를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 차시 당 교육 시간을 늘려 운영하거나, 해당 내용을 두 차시 분량으로 분리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지도안으로 변경·수정하는 것이 교육의 실효성과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토의 활동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애초 교육 참여자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던 원안을 수정하여 소규모 집단의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수의 인원이 참여할수록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확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향후 교육에서는 최대한 많은 참여자가 함께 토론·토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수정한 형태의 교육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심상을 활용한 공감력 증진 교육의 일반화를 위한 추가적 검증 과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일부 학교의 실용음악과 보컬전공자 52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여타 4년제 대학 및 2,3년제 대학, 예술고등학교와 같은 실용음악 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보컬전공자의 양적 확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검증의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 심층 면담에서 피력된 바와 같이 해당 교육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자와 트렌드 및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재곡 확보를 위한 대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본 연구와 비슷한 유형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나 해당 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교수자 집단을 별도로 형성하여 객관적 의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트렌드 및 보컬전공자의 욕구를 지속해서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를 통해 심상을 활용한 보컬교육의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동규. 2010. 「멜랑콜리 미학」. 문학동네.
김주후. 2004. 「교육평가 용어사전」. 학지사.
루돌프 아르하임. 1984.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최광일. 2015. 「독학사 심리학과 3단계 인지지각심리학」. 지식과 미래.

2. 학회지 논문

- 고선미. 2004. 「성악 교수법에 있어서 심상 이미지(Mental Imagery)의 특이성과 역할 연구」 『이화음악논집』 8,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1-20.
김기수. 2012. 「가창의 심미적 경험 확대를 위한 가사 탐구」 『음악교육연구』 41-3, 한국음악교육학회: 27-47.
민경훈.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음악교육의 전망과 과제」 『음악교육연구』 48-1, 한국음악교육학회: 53-74.
우혜언. 2015. 「음악 수용에서의 감정과 공감」 『음악과 민족』 50, 민족음악학회: 171-198.
이도식. 1986. 「중등교육에서의 가창지도의 방향에 관한 고찰」 『교수논총』 2, 한국교원대학교: 135-163.
이도식. 2008. 「노래에서 디손의 이해와 표현에 관한 연구」 『예술교육연구』 6-1, 한국예술교육학회: 57-75.
조승현. 2018. 「실용음악분야의 교육과 정책 개선안에 대한 제언-학회의 설립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 한국산학기술학회: 337-345.
한수정. 2018. 「노인학습자의 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역할 연구: 서울시 노인복지관 학습자의 개인특성, 음악활동 및 우울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7-4, 한국음악교육학회: 185-223.

3. 학위 논문

- 문혜령. 2013. 「심상을 활용한 음악 학습」. 서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사미경. 2008.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신세례. 2013. 「사회적 창의성 신장을 위한 디자인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논문.
- 양우석. 2018.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비교 연구: 음악산업으로의 가능성 모색」.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 여희정. 1997. 「심리적 연습이 무용학습에 미치는 효과(한국무용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이기영. 2019. 「고등학교 실용음악 보컬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임희정. 2005. 「한국무용호흡과 심상훈련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4. 신문 및 잡지 기사

- 정윤희. <서경대 2016수시 경쟁률 17.2대1...최고 407대1>, 한국대학신문, 2015,09,14

5. 저서

- 공규택 · 조운아. 2016. 「국어시간에 노랫말 읽기」, 휴머니스트.
- 김춘경 외 4인. 2016. 「상담학 사전」, 학지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Promoting Vocal Empathy Using Images

- For Those Who Majored in Applies Music and Vocals -

Hwang, Eun Ji

(Joong Bu University Department of Applied Music Lecturer)

Han, Kyung Hoon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Applied Arts Professor)

As part of the progressive direction of vocal education, this study seeks to improve the quality of vocal education through the process of convergence with other disciplin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the effect of the empathy enhancement on vocal majors' expansion by drawing up and applying a vocal education plan using imagery.

Research work was conducted on vocal majors attending the applied music department at J University's Gyeonggi and Chungnam campuses.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conclusions that the educational results could only achieve a positive result for students through the imagery approach used after acquiring primary control of the respiratory or vocal organs, students were limited to those who had at least six months of experience in basic vocal training such as breathing and vocalization.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y 1, 2020, to May 20, 2020, with a total of 52 participants. The SPSS windows 12.0K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survey responses of participants, and the influence was verified using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internal consistency between the items used in the study, and the types of education that the professor mainly use in vocal education.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a 99% confidence level. Looking at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ponse distribution status for the research concept, the 'Degree

of imagery understanding', the 'Empathy enhance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e changes in participants' singing behavio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significant hypotheses. Besid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imagery and the empathy enhancement'. Also,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mpathy enhancement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education for promoting empathy enhancemen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whether to expand participants' imagery understanding and to reflect the education for promoting empathy enhancement. When the opinions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last in-depth interview were synthesized, it was confirmed that participation in education helped to prepare various positive thinking opportunities. In the case of professors, they responded positively to the effectiveness of this education. They confirmed that professors and securing sanctioned songs were needed above all for actual education.

Key words : imagery, visual imagery, Applied music, vocal, vocal training, empathy enhancement

논문 투고일: 2021년 3월 24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1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5일